

문화원 특색사업

1. 용인시 세거 문중협의회
2. 용인문화원 - 진천문화원 자매결연사업
3. 의병장 임옥여 동상(任玉汝 銅像) 및 비(碑) 건립사업
4. 오인수(吳寅秀)의병장 3대 독립항쟁기적비 건립사업





1. 용인시 세거 문중협의회

용인은 조선왕조 오백년 동안 수많은 문중들이 세거한 곳으로 문중마다 찬란한 문중역사를 전래하면서 수많은 문인, 현사를 배출한 곳으로 문중 특유의 독특한 문화유산과 보석처럼 빛나는 수많은 정신유산이 있으나 갈고 다듬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문중협의회를 결성하여 이를 발굴, 보전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하에서 2009년 11월 17일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서 400년 이상 세거한 50여 문중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에 참석한 각 문중의 대표들은 문화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편, 이들에게 문화적 소양과 관심을 이끌기 위해 전 서울대학교 교수 이석호 박사의 특강도 실시되었다.

용인문화원은 이후 사업계획에 따라 각 문중마다 지녀오고 있는 특색있는 문중 문화와 선대들의 유물, 유적을 통해 지역의 향토문화를 집대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1. 사업목적

용인 땅에 400년 이상 세거해 온 문중 대표들의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각 문중마다 지녀오고 있는 각종 문화와 유적을 조사하고 문중 인물을 연구하여 그분들의 사상과 학문적 사고를 조명하여 역사속에 활동한 문중 인물들의 업적과 사상을 후세에게 전수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문중 연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적게는 문중 간 교류가 활발하여 문중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용인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운영일정

- 400년 이상 용인에 세거하고 있는 문중 발굴조사(5월~6월)
- 협의회 출범식을 위한 준비(2009년 11월 17일)
- 문중협의회 결성 및 출범식(12월 중)

3. 협의회 사업운영 내역

- 중요 역사인물 발굴 및 연구사업
- 전통문화 학술토론회 및 선양사업
- 용인의 역사인물 사전 제작
- 가례집람 등 각종 문중자료 사료편찬 사업
- 용인인물 조각공원 조성
- 기타 지역사회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4. 준비개요

- 일 시 : 2009년 11월 17일 16:00
- 장 소 : 용인향토문화연구소
- 대 상 : 용인 세거성씨 문중
- 인 원 : 50명

5. 세거 문중현황

강릉김씨, 강화최씨, 경주김씨, 광산김씨, 광주이씨, 광주정씨, 기계유씨
김녕김씨, 김해김씨, 김해허씨, 나주정씨, 남양홍씨, 남평문씨, 능성구씨
덕수이씨, 밀양박씨, 봉화금씨, 사천목씨, 상주황씨, 성주이씨, 신천강씨
양천허씨, 연안이씨, 연안이씨, 영일정씨, 영천이씨, 용인이씨, 우봉이씨

의령남씨, 장수이씨, 전의이씨, 전주류씨, 전주이씨, 제주고씨, 죽산박씨
죽산안씨, 진주류씨, 진주소씨, 진천송씨, 청주한씨, 추계추씨, 충주박씨
파평윤씨, 평산신씨, 풍천임씨, 한산이씨, 함중어씨, 해주오씨

2. 용인문화원-진천문화원 자매결연사업

예로부터 '생거진천 사거용인(生居鎭川 死居龍仁)'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전설이 전해 오듯, 용인과 진천은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이에 두 지역이 자매결연을 맺고 문화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두 지역의 문화발전을 꾀하고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이끌어 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고자 2009년 11월 25일 용인문화원과 진천문화원이 자매결연을 맺었다.

1. 사업목적

- 용인문화원과 진천문화원이 자매결연을 맺고 우의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문화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문화발전을 도모함.
- 구전되어 오고 있는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용어를 현대적 개념으로 재 해석하고 스토리텔링화 하여 공동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함.
- 특히 양 문화원이 공동으로 문화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동반자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 지역 문화자원 활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 사업개요

- 일 시 : 2009년 11월 25일(수) 10 : 30
- 장 소 : 국제회의실(용인시 문화예술원 3층)
- 참가자 : 용인문화원 임원 30명, 진천문화원 30명
- 주 관 : 용인문화원, 진천문화원

용인문화원-진천문화원 자매결연 협정서

예로부터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전설이 전해 오듯 용인과 진천은 지리적, 정서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바, 두 문화원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21세기 문화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자 다음의 협정을 체결한다.

1. 용인문화원과 진천문화원은 우의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문화발전을 도모한다.
2.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용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공동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한다.
3. 두 문화원이 상호 정보교환과 공동 관심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의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한다.

2009년 11월 25일

용인문화원장 이종민

진천문화원장 남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최종수

- 후 원 : 한국문화원 연합회, 경기도지회, 충북지회
- 내 빈 : 최종수(한국문화원 연합회장) 오용원(경기도지회장)

3. 세부행사일정

1부 : 무용극 '생거진천 사거용인' 비디오관람(10:30~12:00)

· 기획 / 안무 : 심규순 고증 : 정양화

2부 : 용인문화원 - 진천문화원 자매결연식(11:00~12:00)

· 사회 / 김장환(용인문화원 사무국장)

1. 내빈소개
2. 개회선언
3. 국민의례
4. 양 문화원 소개
5. 양측 참가자 소개
6. 협정서 낭독
7. 자매결연협정체결(이종민-남명수원장, 최종수 연합회장 서명)
8. 환영사(이종민 용인문화원장)
9. 인사말(남명수 진천문화원장)
10. 축사(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오용원 경기도지회장)
11. 기념품 전달
12. 폐회

■ 오찬(아미원) 12 : 30 ~ 13 : 30

3부 : 용인문화유적 답사

- 호암미술관 ○ 세종옛돌박물관

4. 진천문화원 소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08번지에 있다. 1956년 11월 26일 설립되어 1965년 4월 29일 진천문화원으로 인가 받았고 1994년 9월 7일 문화체육부로부터 진천문화원 설립인가를 받았다. 2002년 4월 17일 현재의 위치(진천군 진천읍 교성

리 108번지로 이전하여 재개관하였다. 주요 업무는 진천군 고유문화 계발, 보급, 보존, 전승, 향토사 발굴·조사·연구, 사료 수집보존을 비롯하여 지역분화행사 개최, 군민의 사회교육, 환경보존 등이다. 매년 '생거진천'을 발간한다.

해마다 10월 초3일에 펼쳐지는 진천군 최대축제인 '생거진천 화랑제'를 주관하고 있다. 생거진천 화랑제는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자는 취지 아래 1979년부터 개최되어 온 축제로 1998년까지는 '상산축전'이라 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생거진천 화랑제'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축전의 전야제로 상산낭자와 상산화랑을 선발한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한국무용, 다도, 장구, 서예, 민요, 한문 등의 전통문화강좌와 영어 및 중국어 회화, 가요, 건강체조, 공예 등의 교양, 취미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 연혁

- 1956년 11월 26일 진천문화원 설립
- 1965년 4월 29일 사단법인 진천문화원 인가(초대 최남수 원장)
- 2007년 2월 22일 제12대 남명수 원장취임

○ 기본현황

- 임원 및 회원 : 원장 1명, 부원장 1명, 이사 13명, 감사 2명, 회원 75명
- 사무국 조직 : 국장 1, 직원 1
- 재정규모 : 3억4백만원(운영비 7천7백, 사업비 2억2천7백)

○ 주요사업

- 문화행사 : 군민유적순례, 초등학생민속잔치, 생거진천 문화축제, 향토민속놀이 등
- 예술행사 : 예능경시대회, 공연전시행사, 군민동아리 발표회, 민속예술경연대회 등
- 문화사회교육 : 평생교육프로그램 21개 운영.
- 문화역사 마을가꾸기사업 : 진천읍 연곡리 보련마을, 14억 투자 고택보수 및 체험관 증축, 조경공사

3. 의병장 임옥여 동상(任玉汝銅像) 및 비(碑) 건립사업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마을 입구, 17번 국도 변에 위치해 있는 임옥여 동상비는 1993년 6월 18일 당시 용인문화원장 박용익에 의하여 추진되었고, 임옥여 의병장 후손과 풍천임씨 문중의 후원으로 건립되었다. 동상은 서양화가 이상학이 제작하였고, 동상에 새겨진 비문은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박영석이 짓고 글은 강원대학교 교수 황재국이 썼다. 동상은 2m 높이의 자연석 좌대위에 170cm 크기의 동상을 세웠다. 전면에는 대자로 '義兵將玉汝任景宰像'이라 썼다. 뒷면에는 추모비문을 기록하고 말미에 '1993년 계유 6월 10일(음

4월 29일)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장 문학박사 박영석 삼가 짓고 국립강원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황재국 삼가 쓰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임옥여(任玉汝) <항일의병> 양지군 주동면 평촌동(지금의 내사면 평창리)에 거주 하였다. 본명은 경재(景宰). 누대로 무관장(武官將)을 지낸 풍천 임씨의 후예이다. 융희원년(1907) 위미해가는 정국을 개탄하고 동년 7월, 이천군 신면(新面), 남정동(南井洞), 이근풍(李根豊)의 집에서 주창용(朱昌龍), 신규희(申奎熙), 조상현(趙常顯)등과 봉기할 것을 결의하고 포군 32명을 모집, 의병대를 편제할 때 도총대장(都總大將)에 이근풍, 군사(軍師)는 주창용이 되고 임옥여는 좌익장(左翼將)이 되고 신규희는 우익장(右翼將), 김봉기는 진찰장(陳察將)이 되었으며 조상현은 향관(餉官)이 되었다. 대오를 정비한 이들은 일약 출병하여 광주군 되고개에 이르렀을 때 도총대장 이근풍이 다른 참모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피살 당할까를 염려하여 피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김봉기를 대장으로 하여 장두지(獐頭地:또는 노루목)에서 아침을 먹은 후 일본 기병대와 접전을 벌여 격퇴하였다. 그후 이천, 광주,

용인, 죽산 등지를 전전하면서 크게 위세를 떨쳤던 바, 우편소와 헌병분견소를 습격하였고 용인의 굴암사(지금의 묵리 용덕사)에서 왜군 토벌대와 교전하였다. 그 외에도 죽산 백암시장(현, 용인)에서의 교전, 일진회원, 일본 순검 교삼 등 혁혁한 의병활동을 전개하던 중 1907년 11월 10일 수원 수비대에 체포되어 당년 36세 나이로 총살형에 처해졌다. <평리원 재판기록> 일본군이 작성한 폭도사편집자료의 기록을 보면 그에 관한 활동내역이 적혀있다.

-임옥여 전 농상공부(農商工部) 주사. 년 36세. 경기도 양지군 주동면(朱東面) 평촌. 경력: 불명. -

유희 원년 8월 중순 경성소요(京城騷擾) 후의 국운(國運)을 분개하고 동지를 규합하여 이천 창의소(倡義所) 좌장(左將)으로서 횡포를 극하던 바 8월 21일 이천읍에서 일본 기병(숫자 미상)과 교전하여 이를 격퇴하고 그 여세를 몰아 각처에 용비(雄飛) 하기에 이르렀다. 또 광주(廣州), 양근(陽根) 등을 배회하고 이천읍에 들러 유희 원년 8월 30일 다시 일본군과 접전, 부하 2명의 전사(戰死)를 내고 패주한 바 있다. 그 후 포군 12명을 인솔하고 광주 실촌면(實村面)에 이르러 원주 의병대장(義兵隊長)의 군략(軍略)을 사용하여 다시 포군 70여명을 모집하고 굴암(지금의 이동면 묵리 용덕사)에서 일군과 접전, 사망자 수명을 내고 둔주(遁走) 하였다. 또한 유희 원년 9월 14일 포군 1800명을 인솔하고 안성을 습격하였으나 일본군에 의하여 격퇴 당하였다. 그로부터 포군 39명을 인솔하고 양근군(陽根軍)에 들러 수일동안 체제, 죽산군 원일면(지금의 원삼면)으로 행진 중 고초골(枯草谷)에서 일본군 병사 및 순사대(巡査隊)와 교전 후 패전하였다. 이때 패병 33명을 용인의 두두마고개 산 위에 집합시켜 무운(武運)이 비색함을 타이르고 한때 해산하였다. 이상의 폭거 중 광주 상림(尙林) 도중에서 일진회원(一進會員) 4명, 백암시장에서 1명, 또 죽산군 백암에서 순사 1명, 순검 1명을 총살 한 일이 있었으며 한때 정주원(鄭周源)과 함께 횡포를 극한바 유희 원년 11월 자택에서 수비대에 의하여 체포되어 죄상을 자백 받고 드디어 총살 됨. <참고 : 의병항쟁사 3권>

<비문>

임공의 휘(諱)는 경재(景宰)이며 옥여(玉汝)는 그의 자이며 세간에는 옥여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공은 임진왜란 때 호성공신(扈聖功臣)에 오른 명고공(鳴臯公) 전

(鎭)의 후손으로 풍천인(豐川人)이다. 공의 고조는 통덕랑 성직(聖稷)이요, 증조는 통덕랑 태관(泰觀)이며 조부는 절충장군(折衝將軍) 원준(元準)이고 고(考)는 전략장군(宣略將軍) 낙호(洛鎬)이고 비(妣)는 한양조씨이다. 공은 서양세력이 점차 동양으로 몰려옴에 동양군화에 먹구름이 감돌던 때인 1872년 임신 4월 29일 경기도 양지군 주동면 평촌리에서 3남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대담하며 안행이 신중하고 인품이 출중하였으며 효제충신(孝悌忠信)의 자품(資品)이 남달랐으니 조국의 장래를 위해 하늘이 내려준 분이 분명하다. 때는 바야흐로 일본제국주의자의 침략으로 망국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니 일제는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한토(韓土)에서 청(淸)을 구축(驅逐)하였고 국모인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시해(弑害)함은 물론 로일전쟁(露日戰爭)으로 러시아마저 축출한 후로는 이른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요하여 황상(皇上)의 비준없이 외교권을 박탈하였으며 이의 불법성을 해아특사(海牙特使)로 하여금 만국공론(萬國公論)에 호소한 고종황제(高宗皇帝)를 강제 퇴위 시키고 국군마저 해산하는 등, 천인(天人)이 공노(共怒)할 미증유(未曾有)의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배달민족(倍達民族)의 분노는 요원의 불길이 되어 을미년(乙未年)을 시발로 정미년(丁未年)에 이르도록 한토(韓土) 곳곳에는 창의(倡義)의 깃발이 하늘을 뒤덮고 자주의 함성이 산하를 진동했다. 이를 바라본 공은 풍전등화 같은 조국을 구하고자 농상공부(農工商部)의 주사직(主事職)을 미련 없이 버리고 분연히 꺾기하여 구국동지(救國同志)를 규합 한 후 을사오적(乙巳五賊)의 죄상을 25개 항목으로 지적하여 날날이 성토하니 때는 1970년 7월 20일이었다. 공은 그해 8월에 이근풍(李根豐), 김봉기(金鳳基), 주하용(朱河龍), 신규희(申奎熙), 조상현(趙常顯) 등과 더불어 이천(利川)에서 창의(倡義)하여 스스로 좌익장(左翼將)을 맡은 다음 이천에 주둔한 일본 기병대를 급습하여 크게 타격을 가하고 이천우편취급소 순사분파소(巡查分派所)를 파괴하니 공의 혁혁한 항일의전(抗日義戰)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공은 광주군(廣州郡) 실촌면(實村面)에서 원주의 병대장(原州義兵隊長)과 합류하여 일본군과 접전한 후 포군(砲軍) 70명을 모집하여 용인 굴암산(窟巖山)에서 일본군 불파토벌대(不破討伐隊)와 유격전으로 맞서니 공의 전법은 신출귀몰(神出鬼沒)하였다. 광주와 양근(陽根)에서는 적을 연파(連破)한 후 다시 이천읍에서 일군 중촌소재(中村小隊)와 일전을 벌였고, 9월에 접어들어

안성의 일군(日軍)을 습격하고 다시 포군 39명으로 양근(陽根) 일대에서 수일간 전투를 벌인 후 죽산군(죽산군 : 현 용인시 원삼면)으로 이동하여 문촌리(文村里), 학일리(學日里), 고초골 등지의 일군(日軍) 중원소대(中原小隊) 및 순사대와 교전하고 백암(白岩) 장터에서 일경(日警) 주본용사랑(酒本勇四郎) 등과 교전하였다.

이어 10월에는 광주군 쌍림(雙林)에서 일진회원(一進會員) 한 명을 총살하고 백암장터에서 일진회원 한 명, 순사 한 명, 순검 한 명을 총살하고 죽산에서 순검 한 명을 생매장 하였다. 공은 의병들 간의 연대(連帶)를 도모하여 정주원(鄭周源)부대와는 양지(陽智), 죽산(竹山), 음죽(陰竹)과 용인 등지에서 김봉기(金鳳基) 부대와는 광주(廣州), 이천(利川), 여주(驪州) 등지에서 협동작전을 전개하였다. 단기간에 이르도록 혁혁한 전과로 일군(日軍)을 괴롭히던 중 그해 11월 10일 일진회원이 추계리(秋溪里)의 매국노(賣國奴) 송병준(宋秉峻) 집에 주둔한 일군에게 공을 밀고(密告) 함으로써 용인주둔 헌병대에 체포되어 수원수비대(水原守備隊)로 압송되었다. 공은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함은 나의 길”이라고 외치며 일본인과 그 앞잡이인 친일매국노의 만행을 힐책하니 공은 수원 수비대장에게 총살당하였다.

향년 36세로 한(恨) 많은 생을 마감했으니 동료인 신주사(申主事) 김주사(金主事) 등과 함께 총살되었다고 전해질 뿐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고 공의 시신(屍身)마저 거두지 못하였다. 이렇듯 숭고(崇高)한 공의 의거(義舉)가 역사에 매몰된 채 빛을 보지 못하다가 80여 성상(星霜)만에 용인향토문화연구회의 노력으로 세상에 공개되어 1990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는 건국훈장애국장(建國勳章愛國章)을 추서(追叙)하였다. 이에 제현들의 뜻을 모아 공을 추모하는 비를 세움에 명(銘)하노니

아! 슬프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창의를 했건만 웅지(雄志)를 펴지 못한 채 한창기개(氣概)가 넘칠 나이에 형장(刑場)의 이슬로 사라지니 배달민족(倍達民族)의 비탄(悲歎) 만 구천(九天)에 사무칠 뿐, 광복을 보지 못한 당신의 고혼(孤魂)을 달랠 길 없구나.

당신께서 뿌리신 숭고(崇高)한 피로 광복(光復)이 왔고 되찾은 금수강산(錦繡江山)은 지금 번영을 구가(謳歌)하니 명부(冥府)의 당신이여 기뻐하소서 조국을 위해 의분(義憤)에 울고 민족을 위하여 형자(荊)했던 당신의 위대한 삶을 영원(永遠)토

록 추모(追慕)하고자 이 비(碑)에 새기노라.

1993년 계유6월10일(음4월29일)

대한민국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문학박사 박영석(朴永錫) 삼가 짓고

국립강원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황재국(黃在國) 삼가쓰다.

4. 오인수(吳寅秀) 의병장 3대 독립항쟁기적비 건립 사업

오인수 의병장의 항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2001년 이인영이 문화원장이 되면서 기적비의 건립을 추진하여 광복 56주년을 맞이하는 2001년 건립을 추진하였다. 오인수 의병장을 비롯하여 부인, 아들 광선, 딸, 사위 등 온 가족 3대가 독립항쟁에 이바지한 바, 이와 같은 사례는 항일 독립항쟁 사상 그 유래가 흔치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시에는 독립항쟁 기념사업 기금 조성 잔액 3백2십여 만원으로 비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비의 규모 등을 참작해 볼 때 예산이 부족하였고 이의 실정을 알게 된 해주오씨 문중에서 기적비 건립에 따른 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여 별도의 문화원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다. 비가 제막될 때에는 이를 추진했던 이인영이 이미 문화원장직에서 물러나 있었으므로 별도의 제막 행사가 거행되지 못했다.

오인수의병장. 자는 경수(敬秀) 본관은 해주이다. 병자호란 때 척화파로 끝끝내 항쟁을 주장 하다가 청나라에 잡혀가 순절한 추달 오달제 선생의 후손이기도 한 그는 광무 9년(1905) 일본과의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을 때 의병장 정원욱(鄭元郁)에 적극 호응하여 중군장(中軍將)으로서 용인·안성·죽산·여주 등 지역에서 활발하게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본래 선생은 지금의 원삼면 죽능리 어동(於洞)에 살면서 부인 이씨와의 사이에서 4남매를 둔 가장으로서 용인·죽산·안성·여주 등지에서는 그의 솜씨를 따를 수 없는 명포수였다. 그는 조

상으로부터 물려받은 10여 마지기의 농사를 아내 이씨에게 맡겨두고 여름철에는 강원도까지 원정하면서 사냥을 하였다. 18세부터 사냥을 했던 그는 매년 한번씩 포수들이 모여서 솜씨를 자랑하는 화포계(火砲契)에 참여하였고 이때마다 선생은 늘 일등을 차지하였다. 그는 평생을 손에서 놓아본 일이 없는 엽총과 열한살이나 된 사냥개와 더불어 백발백중의 사격 솜씨를 발휘하여 양지·죽산·안성 등지의 헌병대,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일본 헌병과 경찰관을 사살하였다. 한편 같은 시기에 활동중이던 의병장 정철화(鄭哲和) 의병진과 합세하여 중군장으로서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는 안성군 매봉재 전투에서 일본군 1개 대대와 일주야(一晝夜)를 대전 하다가 정규전의 최신 장비로 무장된 일본군 수비대와 장기전을 치를 수 없게 되자 결국 후퇴하였다. 우선 의병들에게는 식량이 부족하였고 총기와 실탄이 부족하였으며, 굶주림 때문에 흠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의병의 주 세력이 속속 기세를 잃어가고 있을 때이며 조직력이 약화되어 가는 대세에 따라 의병들은 흠어질 수밖에 없었다. 병력이 없어진 오인수 중군장은 탄약이 떨어진 총을 메고 애견과 더불어 산야를 헤매며 노숙 하다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야음을 틈타 죽능리 어동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일본군과 헌병들은 신출귀몰하는 의병장 오인수를 체포하기 위한 포위망을 거미줄 같이 몇겹으로 쳐 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잡으려는 한인 밀정이 눈에 불을 켜고 그의 집 주변에 잠복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온 그를 발견하고 밀고함으로써 일진회장(一進會長) 송병준(宋秉峻)의 아들 송종헌(宋宗憲)이 이끌고 온 토벌대(討伐隊)들이 그의 집을 포위했다가 일제히 달려들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오인수 대장은 총개머리를 휘두르면서 포위망을 뚫고 돌진하였고 그의 충견(忠犬)은 이들을 물어뜯으면서 주인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난타를 당하여 마침내 의병장 오인수는 쓰러졌고 그의 애견 역시 토벌대의 칼에 찔려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의 아들 광선(光鮮)은 회고록에서 '토벌대는 아버님을 체포하기 전에 아버님의 반려나 다름없는 애견부터 죽였다. 당시 11살이던 나는 붙잡혀 가시는 아버님을 동구 밖까지 배웅하고 돌아온 후 죽은 애견을 묻으면서 한없이 울었다. 아버님은 8년 징역형을 받으시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기나긴 영어생활에 들어가셨다'고 적고 있다. 선생은 출옥 후 1920년 12월 만주 통화면 합니하(合泥河) 신흥무관학교에 다니던 아들 광선과 합류하고 거

기서 조국의 광복만을 기다리다가 67세로 서거하였다. 그 아들 광선(본명:성묵)은 남만주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제 1대장을 시발로 해방될 때까지 독립투쟁을 계속 했으며 광선의 아내, 딸 희영과 희옥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항일 독립투쟁에 이바지 해 온 장한 업적을 남겼다.《참고문헌 : 이흥식 국사대사전, 김승학 한국독립사(하), 의병항쟁사 경향신문 1987. 5. 27일자, 신동아 제78호(1971. 2. 1일자)》

義兵將吳公寅秀倡義紀蹟碑

先生の諱는 寅秀이시며 字는 敬壽, 貫鄉은 海州이시니, 始祖는 高麗 檢校政丞 諱 仁裕이시고 左領護軍 諱希保의 十三代孫이시며, 派祖 處士公 諱允忠의 七代孫이시고 丙子胡亂時 斥和臣으로 靑나라와의 和議를 끝내 反對하며 抗爭할 것을 主張하다가 敵國 審陽에서 殉節하신 秋潭 吳公達濟의 六代 傍孫이시다. 公은 高宗五年 戊辰二月二日 陽地郡 遠三面 竹陵里 於洞에서 父親 諱 泰漢의 三男으로 出生하시어 長성한 後 孺人 安城李氏와의 사이에 四男妹를 두시니 長男은 諱 光鮮이요 長女는 諱 泰順이며 次男은 諱 乾成이고 次女는 諱 言年이다. 先生께서는 幼年時부터 活達豪放하여 사냥을 즐겼으며 十八歲부터는 火砲契에 參與하여 龍仁, 安城, 竹山, 驪州等地에서 先生の 숨씨를 따를 사람이 없는 名砲手로 이름이 높았다. 光武九年 마침내 日本과의 乙巳勒約이 締結되자 弱小民族의 鬱憤을 참지 못한 先生께서는 빠어난 射擊 숨씨로 救國戰線에 뛰어들어 義兵將 鄭元郁 先生과 함께 龍仁 出身 鄭哲和義兵將과 合勢한 後 中軍將을 맡아 陽地, 竹山, 安城 等地的 日本軍 憲兵隊와 警察駐在所를 襲擊하는 등 赫赫한 對日抗戰을 展開하던 중 安城郡 매봉재 戰鬪에서는 日本軍 一個 大隊와 一晝野에 걸쳐 熾烈한 交戰을 치루었으나 最新의 裝備로 武손녀 光복군 출신의 오희옥여사裝된 日本의 精銳軍을 不足한 食



손녀 광복군 출신의 오희옥여사

糧과 劣勢한 火力으로 어찌 當할 수 있었으리요, 마침내 義兵의 主力은 속속 氣勢를 잃고 大勢가 기우러져 뿔뿔이 흩어지니 선생께서는 빈 銃을 메고 忠犬과 함께 山野를 헤매며 風撰露宿 하다가, 지친 몸으로 夜陰을 틈타 竹陵里 於洞 自宅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神出鬼沒하는 先生을 逮捕하기 爲하여 血眼이 되어 있던 倭警의 거미줄 같은 包圍網과 周邊에 潛伏시켰던 日帝走狗의 偵探에 의하여 密告 되기에 이르자 當時 一進會 會長 宋秉峻의 아들 宋宗憲이 이끌고 온 討伐隊에 逮捕된 後 갖은 拷問과 惡行을 當한 끝에 西大門 刑務所에서 八年間의 獄苦를 치루시었고 一九二十年 十二月 滿洲로 亡命하신 後에는 中國 通華縣 洽泥河 南滿洲 新興 武官學校에 다니던 長男 光鮮과 合流 하면서 光鮮이 學校를 卒業하고 西路軍政署 第一隊長을 始發로 抗日 戰線에 나서자 父子가 함께 獨立抗爭을 繼續하였을 뿐 아니라 아들 光鮮이 李青天等과 함께 赫赫한 獨立鬪爭을 展開하는 동안, 光鮮의 妻는 韓國革命 女性同盟에서, 長女인 姬英과 그의 男便 申松植은 韓國青年 戰地工作隊와 光復軍에서 次女 嬉玉은 韓國光復陳線 青年工作隊와 光復軍 第五支隊에서 活躍하는 등 先生으로부터 孫女에 이르기까지 三世를 이어 抗日獨立鬪爭에 이바지 하여 靑史에 빛나는 壯한 業績을 남기시니 이러한 例는 獨立鬪爭史上 찾아보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特히 長男 光鮮은 光復後 第二訓練所長과 大田兵士局 司 命官을 歷任, 陸軍准將으로 豫編하였으나, 그러나 先生께서는 끝내 祖國의 光復을 보시지 못한 채 一九三五年 十月 二十三日 六十七歲를 一期로 一生을 마치시어 異國 하늘 아래 不歸의 冢이 되시었으니, 千秋에 맺친 限을 오늘에 이른 지금, 누구라서 記憶하며 그 靈前에 香을 불살라 魂魄을 慰勞하리요, 嗚呼라! 光復 半百年이 지나도록 先生 一門의 빛나는 功績이 기려지지 못해 왔음을 실로 안타깝게 여겨 왔더니 昨今에 이르러 韓, 日間의 歷史를 歪曲 記述 하는 등, 傲慢不遜한 日本 極右 殘存勢力들의 植民史觀에 온 國民이 憤怒하는 때를 당하여 님들의 愛國 獨立精神이 이 江山에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온 天下에 밝히고 이를 後世에 傳하고자 이에 碑를 세우고 銘하노니

오호라! 壯하시도다 / 先生 一門의 救國 精神과 愛國衷情은 / 이 山河를 덮고도 넘치는 도다 / 公의 大姓尊名 靑史에 빛나시니 / 그 큰 뜻 萬分之一 이나마 헤아려 / 돌에 새김이 마땅하도다. / 이곳은 先生께서 태어나신 곳, / 나라에 興亡은 있었어

도/山川은 예대로依舊 하도다./ 이 땅 한 모퉁이 터를 다지고 /비로소 돌을 다듬
어 碑를 세울진대/ 님들의 愛國衷情은/山高水潔에 비할 수 없고/ 三世를 이은懿
節은 /그 不朽함 짝할 것이 없나니 /이곳을 지나는 樵夫牧童인들 /어찌 先生의 崇
高한 功德을 잊으리요.

2001年 光復五十六周年 八月 十五日 小說, 隨筆登壇文人 龍仁文化院長 李仁寧
謹撰

- 이 비문은 2003년 12월 원삼면 문촌리 해주오씨 문중에서 재실 입구에 세웠
다. 비양에는 義兵將 海州吳公 寅秀 三代獨立抗爭記蹟碑라 새겼다. -